예수님의 지상명령(I)-의심

(마28:16~20)

16.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7.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지상명령(I), 의심>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명령, 유언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 지상명령을 교인들한테 전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설교할 때에 쓰거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파송예배 때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기독교 교육학과의 학생들이 첫 번째로 꼽는 성경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기독교 교육학과의 모토가 되는 말씀으로 많이 인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제대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인들한테 전도를 강조할 때 쓰는 그런 설교정도로 이해해 갖고는 이거 이해 다 못합니다.

지금 이 지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17절에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말을 마태가 쓴 의도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가 다 의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있는데도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마태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우리보다 훨씬 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관계하는 입장에 있어서 우리보다 앞선 입장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의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의심하는 사람들 입장에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상명령이 간단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그냥 부활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도 어찌 보면 참 막연한 말씀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 졌다고 하는 구약성경 전체와 신약성격 전체가 다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도 예수님이 분부한 것으로 속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예수님이 분부한 것만 가르친다고 한다면, 사복음서 이외에는 가르칠게 없습니다.

그렇게 봐서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라면 66권을 누가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가르친다는 게 뭐에요? 통달해야지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자기 자신은 깨달은 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66권을 다 깨닫고 어떻게 가르쳐요, 누구한테 뭐라고 가르칠 겁니까?
내가 분부한 모든 것! 모든 것을 다 가르치라 그랬는데.
누가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깨닫고 가르칠 사람이 있습니까?
지상명령 자체를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지상명령의 의미는 참으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면 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명령의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의심의 고지를 넘어가야 됩니다.
의심의 경계를 넘어간 뒤에라야 지상명령을 일단은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바르게 이해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자~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모였는데, 이 제자들 중에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면서 예수님과 만나는데, 그 중 어떤 사람은 경배하지 않고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주석가들이 아주 곤혹스러워 합니다.
11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도대체 뭘 의심했다는 거냐?
11제자 중에 의심한 사람이 있다는데 그들이 뭘 의심했다는 거냐?
난감하지 않아요? 뭘 의심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의심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것이 살짝, 아직도 살아계시다가 부활하신 것일까? 부활도 아니죠.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의심한다는 얘길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 의심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 거고.

그냥 지상명령은 본문을 읽고 나면 '가서 전도하자' 이렇게 빠져 나가요, 얘기가.
제자훈련 받을 때 여러분 뭐라 그래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가르침을 받고 뭘 가르쳤습니까? 제자훈련 받은들 뭘 지키고 계십니까? 맹랑한 거예요.
자! 뭘 의심했을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결합과 연합을 의심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느냐'라고 조롱하고 냉소하고 믿지 않을 때 '나는 예수님이 부활한 거 믿는다!' 이러면 다 된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세 번의 예고 끝에 모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만나리라고 하는 예고가 세 번이나 주어집니다.
천사들까지도 예고를 해서, 세 번이나 예고를 주어진 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람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꼽을 때 '500명에게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500명에게 일시적으로 나타난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제자라고 마태가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 번이나 예고한 사건이기 때문에 입소문을 통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 다니던 사람들이 다 모였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지요.

근데 문제는 11제자 중에 의심을 했건 500명 모인 사람 중에 의심을 했건 누가 의심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이 의심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의심의 내용이.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의심이 무슨 의심을 말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 의심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마태가 준 힌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뵈옵고 경배하나'라는 말입니다.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나, 경배하는 것과 의심하는 것을 딱 대비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프로세티네오라는 단어로 왕 앞에서 절하는 모습을 표현해서 경배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왕에게 절하는 그 모습! 왕에게 절하듯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왕으로 생각해 절하는 것과 의심하는 것! 그 내용이 뭘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을 맞닥뜨리게 될 때에 많은 사람, 거의 다 도망갑니다.

왜 도망갑니까?

예수님과 내가 결탁하게 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내 삶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능력과 권세의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것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다 지금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남의 얘기처럼 듣지 마시고 내 얘기로 들으세요, 내 얘기로.

자! 우리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 위에 얹혀 있던 내 인생의 꿈이 박살 나버리고 맙니다.

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모든 추종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자! 의심이 생깁니다, 이 의심은 어떤 의심입니까?

'부활한 것은 굉장한 사건이다 맞다! 죽은 자가 살아나다니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So What? 그래서 뭐?'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인생의 꿈을 위하여, 내 인생의 비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내 인생을 걸어도 될 수 있는 분이냐 아니냐를 의심한다 이겁니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부활사실을 믿으면 믿음이 완성 되는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 인생의 운명을 걸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이거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었다가 또 뒤통수 맞는 거 아니야? 부활하신 것은 굉장해! 그러나 내 인생과 연관을 지어도 될까? 과연 내 인생을 그분에게 실어도 돼? 이번에 실었다가 망가지면, 이번에 실었다가 십자가 사건 때 깨진 것처럼 또 그렇게 깨지면 내 인생은 누가 뭐 보험을 든 것도 아니고, 누가 변상해 주냐?'

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의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의심의 자리를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겠어요, 말겠어요?
왜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죽음의 강을 건넌 것이에요.
죽음의 강을 건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버리신 상태가 부활하신 주님의 상태입니다.
똑같이 갈릴리에 한 장소에 모여 있지만, 한 공간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는 이력이 달라요, 이력(履歷)이.
발로 걸어온 경력이 다른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죽음을 넘어가서 죽음의 강 저편에 서 계신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분에게 내 인생을 싣는다는 것은, 나도 몸이 살아있지만 마음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저편, 죽음의 강 저편으로 넘어가겠다는 결심이 없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결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께 내 인생을 걸어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빌라도 앞에 나타나고 대제사장 앞에 나타났다, 산헤드린 공회에 나타나셨다!
왜 이렇게 안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그 기세를 몰아서 황제가 거하는 로마의 광장에 나타나셨다!
자! 유대인들이 어떻겠습니까?
유월절 모여서 예수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아직 그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 이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러면 아마 고향으로 돌아가던 모든 사람들 다 돌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맞붙어서 성전에서 대제사장을 딱 심판해 버리고 온~ 유대인이 다 따랐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굉장한 사건이 됐겠습니까?
하지만 다~ 피하시고, 다 피하시고 당신의 추종자들 극소수만 갈릴리 시골에, 로마의 행정권과 대제사장의 영향권이 가장 미치지 못하는 시골에 다 모아놓고 거기 딱 나타나십니다.
그 이유가 뭐에요?

죽음의 강을 건너서 세상 바깥으로 빠져 나가신 주님께서 이 세상 안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서 제자들을, 제자들의 마음을 죽음의 강 바깥으로 나가신 당신의 입장, 당신의 처지, 당신이 서 있는 곳으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이 세상의 경계 안에서, 내가 가정을 통해 행복하고 남편과 아내를 통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결혼 잘하고 싶고, 자식을 잘 길러서 엘리트로 만들어서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싶고, 회사에서 뭐 사업을 잘하고 싶고 뭐 어쩌고 해서, 이 세상에서 목회를 잘 해서 기쁨을 얻고 싶고…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서 경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 이 가소로운 얘깁니다,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면.
부활 예수님은 죽음의 강을 넘은 뒤에 하늘나라로 곧바로 올라가실 분이십니다.
이 분에게 운명을 걸겠어요?
이제 이분에게 운명을 걸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도 기쁘지도 않고, 돈을 안 벌어도 슬프지도 않고, 벌고 싶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됩니다.
아이가 일류대학 들어가도 그것 때문에 기쁘지도 않고, 전문대학 들어가도 슬프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겠어요?
이러니 의심한다는 소리 안 나오게 생겼습니까?
내가 부활하신 주님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장사 지내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죽으면 세상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저 세상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으로.
저 세상으로 간 분이 부활해서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를 따라 오라는 겁니다.

마음이 주님을 따라서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날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받으면 전부 이 세상 안에서 내 성취를 위하여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지상명령을 예수님의 지극히 높은 명령을 다 제 멋대로 왜곡하고 오해하면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얹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내 마음이 '이제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람이 된다, 이 세상에서는 기쁨이라곤 얻을 수, 아예 기쁨이 없는, 이 세상에는 기쁨이 없고 마음의 기쁨은 오직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만으로 기쁠 수 있겠다, 이런 사람으로 살겠다.'
이게 예수 믿는 시작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왜 필요하냐? 부활하신 예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기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모든 거에 대해 다 죽는 겁니다.
세상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이 십자가 과정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내고 무덤에서 부활하는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제 더 이상은 세상에서 기쁜 일 찾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서 만족할 일 찾지 않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죽는다 그래도 베드로처럼 잠을 자는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 당장에 되지 않아도, 저나 여러분이나 아직도 그런 지경에 도달하려면 까마득하더라도 알기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는 게 뭐냐?
죽음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부활하신 뒤에, 죽음의 강을 되돌아와서 이 세상 안에서 삶을 꾸미지 않으셨습니다, 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분과 운명을 같이 하려면, 세상을 떠나고 몸은 살아 있지만 죽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것과 똑같은 자가 되겠습니까?
전부 이 세상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살아 있으려고, 더 잘살려고, 더 오래 살려고…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하는 이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못한 이유는, 이 사람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 내 인생을 이분에게 걸어도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계산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걸지 않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착각을 믿는 것이고, 오해를 믿는 것이에요.
자기스스로 자기를 속임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해서, 이제 내 마음이 이 세상에서는 기쁠 일도 없고 슬플 일도 없고, 오직 내 기쁨과 슬픔은 하늘에서 결정이 돼서, 하늘이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면 슬픈 것이고 하늘이 채워지면 기쁜 것이다, 이것만이 내 기쁨이다, 이것만이 내 삶이 에덴이 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조건이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 이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입니다, 왕으로 모시는 자에요.
그분과 운명을 같아 하겠다고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라는 얘깁니다.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내 운명을 인생의 전부를 걸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의심의 자리에 있다는 이 사실을 먼저 깨달음으로부터 바른 기독교인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주제에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있다는 얘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 인생의 운명을 얹어 놓을 결단도 못하고 있는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네 마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훈련이네 마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심! 이 자리를 분명히 보고 결단하고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예수님의 지상명령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조차 되어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진정으로 내가 내 인생의 운명을 같이할 수 있을 것인가부터 고민하고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 내 마음을 얹고 온전히 주님 따라 하늘나라 올라가고, 이

세상에선 더 이상 기쁨과 만족의 이유를 찾을 필요도 없고 찾으려 하지도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하옵나이다.

아멘!